

SOCIETY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늘 불안해”…광주 청년 상담 1위는 ‘정서 고민’

남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6348가구 대상 이용권 제공

광주 남구는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6348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가 지난 9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거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장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최근에 세대 주소가 변경됐거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과 동일한 세대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돼 있던 지원 금액을 통합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괄 지급함에 따라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청년센터, 작년 직장인 등 136명 1038회 상담

공감대 형성·심리건강 집중…진료비 등 무료 지원

A청년은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통, 두통을 달고 산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불안감과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B청년은 회사에서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로 성과에 만족하지 못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늘상 피곤함이 몰려온다.

광주청년센터는 지난해 광주지역 청년 136명이 센터 내 마음건강상담소를 찾아 정서, 관계, 진로 관련 상담을 받은 건수는 1038회로,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정서 고민’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정서 고민이 62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관계 고민 35명(25.7%), 성격 고민 17명(12.5%), 진로 고민 13명(9.5%), 행동 고민 6명(4.4%), 중독 고민 2명(1.4%), 경제 고민 1명(0.7%) 순이었다.

마음건강상담소를 방문한 청년의 직업

을 보면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직업별로는 직장인 65명(47.7%), 취업준비생 51명(37.5%), 프리랜서 11명(8%), 대학(원)생 7명(5.1%), 기타 2명(1.4%)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108명(7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은 28명(20.6%)이었다.

마음건강상담소는 학교·직장 생활, 취업,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증진, 일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심리사(2급 이상), 정신건강임상심리사(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18명의 상

담사가 동·북구(학동), 서·남구(풍암동), 광산구(수완지구) 등 3개 권역별로 배치돼 전문 상담(최대 8회), 긴급 지원(초진 진료비, 약제비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동구와 광산구에 각 1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컬러테라피(색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파악해 심신의 균형을 되찾도록 하는 심리 진단·치료 방법)를 통해 타

인과 함께 일상생활, 생각 등을 나누며 심리적인 건강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센터는 또 격

월로 상담사 전

문성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요 상담사례, 청년 정책 등을 교육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심리상태를 돌아보고 스스로 다독이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상처받아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줬다는 후기를 남겼다.

광주청년센터 관계자는 “마음의 힘이 약해져 가는 청년이 많다는 점을 느낀다”며 “광주청년센터 마음건강상담소는 그 어떤 이야기라도 함께 들으며 청년에게 힘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센터는 1대 1 심리상담 참여자를 선착순(30명)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마음의 이야기할 수 있는 19~39세 광주 청년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국립대병원 경영난…노동자에 책임 전가”

전국보건의료노조 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국립대병원이 의정 갈등에 따른 경영난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대 등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이날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무급휴가 종용, 필요인력 총원 중단 등으로 국립대병원 이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노사 간 근무조 당 간호사 수유지를 합의했지만, 이행을 파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자율을 빙자한 연차사용 강요, 연차축진제 도입을 위해 전산작업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의료 개혁을 폐기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산하 기자 goback@



“단체협약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는 10일 오전 전남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차축진제 도입 시도 및 단체협약 위반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문인 광주 북구청장 “2031년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증장기 로드맵 발표…14일 등록 1주년 기념행사

문인 북구청장(사진)이 평두메습지의 광역시 최초 람사르습지 등록 1주년을 앞두고 국제 생태도시인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증장기 구상을 발표했다.

문 구청장은 10일 본인의 SNS를 통해 “평두메습지가 생태도시 북구의 상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2031년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획득할 로드맵을 그려냈다”고 밝혔다.

북구 화암동에 위치한 평두메습지는 지난 2023년 5월13일 광주 최초이자 전국 26번째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산지형 습지다.

무등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무등산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수달, 담비,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

며, 국내 양서류의 약 40%가 분포하는 생물 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 손꼽힌다.

북구는 202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습지를 자연친화적 복원공법으로 되살리는 데 성공했으며, 그 성과는 환경부 주관 ‘자연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후 어린이 람사르 생태탐사대, 시민 과학 생태학교 등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인접한 담양 하천습지와 생태축 연계 구상이다.

문 구청장은 “담양 하천습지는 국내 하천습지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평두메습지와 함께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며 “담양



하천습지부터 월산보 구간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람사르 습지도시 준비과정에 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람사르습지도시는 단순한 생태도시 인증이 아닌 지역의 국제적 위상, 생태관광, 환경교육, 도시 브랜드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라며 “북구가 국내 생태 행정의 선도 모델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계획은 오는 14일 평두메습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람사르습지 등록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된다. 행사는 시민참여형 생태탐사대 보고, 체험부스, 생태연극 등으로 꾸러진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서구, 치매 안심도시 조성…전담책임제 설명회

광주 서구가 ‘치매 안심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0일 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들불을에서 ‘서구형 치매 전담책임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서구형 치매 전담책임제”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구청 통합돌봄국,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등이 협력해 치매 관리 대상자에게 맞춤형 관리·예방·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로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는 김진학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와 오형균 광주보훈병원 신경과 부장으로부터 각각 ‘지역사회 기반 치매 관리 방안’과 ‘건강한 뇌를 만드는 생활습

관’을 주제로 한 전문 강연이 펼쳐졌다.

서구는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환자 통합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상무2동, 풍암동, 금호1동을 시작으로, 치매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지역 내 고위험군을 총괄하게 관리하는 한편 이후 18개 전체 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 예방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책임이다”며 “빈틈없는 치매 관리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켜 치매 안심도시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i404@gwangnam.co.kr

전남대, 신규 융합대학 선정

‘디지털경제·포용사회’ 분야

전남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HUSS)’ 신규 대학연합체에 선정됐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사업은 대학 내 학과와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공유 대학 체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3~5개 대학이 분야별 연합체를 구성하고 주제를 정한 뒤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디지털 경제 분야(전남대 주관, 광운대·국립공주대·부산대·홍익대 참여), 포용사회 분야(인천대 주관, 국립부경대·대구대·상지대·서강대 참여)에서 선정됐다. 김윤수 기자 joinsu@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기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가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